

임진왜란에 대한 태국의 실용 외교와 중국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외교*

조 흥 국**

I. 이끄는 말

중국의 『명사(明史)』와 『명실록(明實錄)』 그리고 한국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선조실록(宣祖實錄)』과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에는 임진왜란 시 태국 군대의 출병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태국의 임진왜란 참전 문제는 국내외의 소수 문헌들에서 이미 다루어지나 언급된 바가 있다. 예컨대 19세기 중엽 중국의 웨이 위안은 『해국도지(海國圖志)』에서 태국의 임진왜란 참전 문제에 관한 『명사』의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魏源 2004: 권8, 東南洋, 暹羅國). 상기 문제는 1920년대 윌리엄 알프레드 레 우드가 쓴 태국의 역사에서(Wood 1933), 또 1930년대 일본의 구노 요시사부로 연구에서 간략히 언급되었다(Kuno 1937). 태국의 임진왜란 참전 이슈가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어진 것은 올리버 윌리엄 월터즈의 논문에서이다(Wolters 1968).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09년 2월 4일 태국의 탐마삿대학교(Thammasat University)에서 한국-태국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의 기념으로 열린 The 7th Korea Forum에서 발표되었음. 논문에 유익한 논평을 해준 태국과 한국의 여러 학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림.

**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seathai@pusan.ac.kr

이들 중 중국인과 서양인들은 임진왜란 시 태국과 중국의 접촉을 중시하며, 특히 윌터즈는 태국의 참전 의도의 배경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 사료를 참조하지 않고 조선 정부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이들의 연구는 태국 군대가 임진왜란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에 비해 한국의 이현중(1964, 1974, 1984)과 하우봉(2004)은 주로 한국의 사료를 근거로 태국의 임진왜란 참전을 역사적 사실로 간주한다. 이들의 연구는 하지만 태국이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에 왜 자신의 군대를 파견하려고 했는지의 배경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임진왜란의 참전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이였을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명(明) 정부가 조선 정부에게 조선을 구하기 위해 중국이 태국과 류큐(琉球)의 군대를 동원시켰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그러한 행위는 과연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리고 끝으로 태국 군대가 임진왜란에 실제로 참전했는가? 이 글은 이상의 의문에 관해 따져봄으로써 태국의 임진왜란 참전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아시아에서의 일본 팽창에 대한 히데요시의 포부

1582년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의 죽음으로 권력을 장악한 후 1590년에 일본의 통일을 달성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1592년 한국을 침공하여 이른 바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한국에서는 히데요시¹⁾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한국과 중국을 정복하기 위해서였

1) 히데요시는 농민 집안 출신으로 원래는 성(姓)이 없었다. 그가 성을 얻게 된 것은 1586년 12월 일본 황제가 그의 정치적·군사적 공로를 인정하여 ‘도요토미(豊臣)’라

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종종 “일본의 나폴레옹(Napoleon of Japan)”이라고 불리는 히데요시는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페르시아 그리고 당시 일본인들에게 알려진 다른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류큐, 타이완, 필리핀 그리고 남양(南洋)의 다른 섬들 등 아시아 대륙 근처의 모든 도서들을 포함하는 대(大)아시아 제국을 창설하는” 거창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Kuno 1937: 143). 그가 그러한 포부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구노 요시사부로에 의하면, 첫째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 통일의 기틀을 놓아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히데요시가 1590년에 일본의 통일을 완성한 것, 둘째 금, 은, 동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고 해외 무역의 발달로 일본의 국가적 부가 16세기 말에 크게 증대한 점, 셋째 수 세기간 이어진 전쟁의 결과 일본 내에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투지가 강력한 병사와 무사의 숫자가 많았다는 점 등 세 가지 내적인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Kuno 1937: 143).

아시아 지배에 대한 히데요시의 의도는 그가 1590년에서 1593년 사이에 아시아의 몇몇 나라에 보낸 서신에서 잘 드러난다. 1590년 2월 28일에 류큐의 국왕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나는 오래 전부터 외국 나라들을 나의 지배 아래에 두고 그 민족들이 나의 자비로운 통치와 보호를 누리게끔 하는 포부를 품어 왔다”고 말했다(Kuno 1937: 322). 그는 1591년에는 마닐라를 왕래하는 하라다 마고시치로(Harada Magoshichiro)라는 일본 상인을 사신으로 삼아 마닐라로 파송하여 당시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스페인 식민 당국에 서신을 보냈다. 고메스 페레스 다스 마리냐스(Gómez Pérez das Mariñas) 스페인 총독에게 보낸 1591년 9월 15일자의 다음의 서신은 아시아의 맹주를 꿈꾸는 히데요시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는 새로운 가문 이름을 하사한 이후였다(Kuno 1937: 141) 그에 따라 이 글에서는 이후 그의 이름 표기를 ‘히데요시’로 한다.

나는 신묘한 전조(前兆)를 갖고 태어났다. 점술가들은 이 전조를 내가 열국을 다스릴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예언은 성취되었다. [중략] 그것은 10년도 채 안 되어 이 나라가 정복되지 않은 땅이 한 치도 남지 않고 모두 통일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국가적 통치 권력은 국경을 넘어 멀리 확장되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과 류큐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조공 사신을 보내어 나에게 경의를 표했다. 나는 지금 중국의 정복을 꾀하고 있다. 이것은 내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명령에 따른 행보일 뿐이다. 당신의 나라로부터는 아직 나에게 대한 경의의 표시나 조공이 오지 않았다. 이에 나는 당신의 나라를 응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전선(戰線)들은 당신 나라의 연안으로 향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어서 히데요시는 스페인 식민 당국에게 자신의 요구에 순응할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말하면서, “내년(즉 1592년) 봄에 (중국 정복을 위해) 규슈(九州)의 히젠(肥前)에 지휘 본부를 세울 것이다. 당신은 히젠에 지체하지 말고 와서 나에게 항복하라. 만약 주저하면 당신의 나라는 우리의 원정군에게서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Kuno 1937: 308-309).

히데요시는 또 1591년 7월 25일에 인도 고아(Goa)의 포르투갈 총독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신이 인도를 정복할 생각도 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서신에서 그는 다른 편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일본의 통일을 달성했음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권력은 이제 외부 세계의 원근 많은 나라들로 확대되었다. 이 나라들은 나의 자비로운 통치 하에서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려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다. 그리하여 동·서·남·북의 통치자들은 기꺼이 나에게 복종했다. [중략] 내 나라는 이제 세계의 뛰어난 강국이다. 나는 나의 지배를 중국으로 팽창하려고 한다. 우리의 전선과 병사들을 중국으로 보내는 계획이 마무리 되었다. 이것은 곧 실행에 옮겨질 것이다. 중국을 정복한다는 하늘이 내리신 이

사명을 완수한 후에는 당신의 나라에 도달할 길을 쉽게 찾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전선과 병사들은 (당신의 나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지라도 그리고 (당신의 나라의) 병사들이 어떤 종류의 군대일지라도 자신들에 맡겨진 과업을 성취할 것이다(Kuno 1937: 313-314).

히데요시는 타이완으로도 일본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1593년 11월 5일에 작성된 이 편지에서 그는 현재 조선이 이미 정복되었고 조선을 구하기 위해 파견된 중국의 군대도 패배하여 중국이 일본에게 화의를 요청했으며 필리핀과 류큐 왕국도 조공을 보내어 항복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타이완도 즉시 일본에게 복종의 예를 표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선의 정복을 위해 일본 군대가 한반도로 파송된 후에 작성된 이 편지는 히데요시의 사신인 하라다(Harada)가 타이완에 도착했을 때는 당시 이 섬에 중앙 정부나 지역을 대표하는 통치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Kuno 1937: 327-3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은 아시아의 제패를 꿈꾸는 히데요시의 생각의 한 부분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히데요시는 이상 살펴본 아시아에서의 팽창 의도를 조선의 국왕에게도 알렸다. 1590년 말에서 1591년 초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국서(國書)에서²⁾ 그는 조선의 선조(宣祖)에게 태양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어머니의 태몽으로 태어난 자신이 일본을 이미 통일했음은 물론이고 햇빛처럼 장차 사방에 자신의 명성과 위엄을 떨칠 것이라고 자신을 과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나라가 멀고 산과 강으로 막혀 있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

2) 이 서신의 말미에 작성 시기가 “덴쇼(天正) 18년 경인(庚寅) 중동(仲冬)” 즉 1590년 음력 11월경으로 되어 있다.

한 번의 도약으로 명(明) 나라에 바로 들어가 (중국의) 400여 주(州)에서 그 풍속을 내 나라의 것으로 바꾸고 중국 황제의 백성을 정치로써 억만년 동안 교화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 귀국이 앞장을 서서 일본에 복종하면, 그것은 먼 것을 걱정함으로써 가까운 우환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다에 있는 먼 지방의 작은 섬들이라고 해서 (일본에) 나중에 나아온다면, 그러한 무리는 용서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명 나라에 들어가는 날 (조선의 국왕께서)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군영(軍營)에 임한다면, 그것은 이웃 사이의 동맹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것이다(宣祖修正實錄: 권25, 선조 24년 3월 정유).

위에서 살펴본 바 히데요시가 류큐, 필리핀, 인도의 고아 등에 대한 팽창도 꿈꾸고 있었던 것은 중국 당국에 의해서도 감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사』의 열전(列傳)의 일본에 관한 기록은 히데요시가 류큐, 필리핀, 시암(Siam) 그리고 프랑크족(族)³⁾ 각국을 압박하여 모두 일본에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었다고 전한다. 이 기록 중 이들 나라가 일본에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이지만, 히데요시의 일본 정부가 그들에 대해 위협을 가했다는 것은 앞에서 본 그의 서신들이 입증하는 것처럼 사실이었다. 위의 기록은 계속해서 히데요시가 중국인들이 일본을 마치 호랑이처럼 두려워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중국을 침범하고 조선을 멸망시켜 이를 점거하려는 생각도 아울러 품고 있다고 말한다(明史: 권322, 列傳 제210, 外國3, 日本).

히데요시는 일본에서 한 가톨릭 신부에게 “자신이 언젠가 중국을 정복하면 중국을 위대한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사업에 신부들에게 모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Kuno 1940: 11). 1592년 임진왜란의 목표가 중국 정복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의 푸젠(福建) 사람으로 일본에서 살고 있던 쉬이허우(許儀

3) 원문의 “포랑지(佛郎機)”는 중국인들이 명·청 시대 서양인 특히 스페인 사람과 포르투갈 사람 혹은 그들의 식민지를 가리킬 때 쓴 용어이다.

後)란 자는 히데요시의 중국 공격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를 중국 당국에 알렸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히데요시는 이미 1590년 초에 중국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일본에서 휘하 장수들에게 1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그 해 중엽에는 쓰시마 섬(對馬島)의 태수에게 조선의 지세를 탐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宣祖修正實錄: 권25, 선조 24년 5월 을축).

Ⅲ. 태국의 임진왜란 참전에 대한 제안

이상 살펴본 히데요시의 팽창 위협에 대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보여준 반응은 다양했다. 필리핀의 스페인 식민 당국은 위에서 언급한 히데요시의 위협 서신을 수령하기 전인 1592년 초에,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일본 군대가 곧 필리핀에 쳐들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마닐라에 입항한 한 상선을 통해 들었다. 이에 스페인 총독은 즉시 필리핀 연안의 방어를 강화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한편 스페인의 모국 정부와 멕시코의 스페인 식민 당국에 편지를 보내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 후 히데요시 서신을 받은 후, 고메스 페레스 다스 마리아스 스페인 총독은 히데요시에게 보낸 1592년 5월 1일자의 답신에서 스페인이 비록 세계의 많은 나라를 정복하여 식민지로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나라”가 되어 있지만, 스페인령 필리핀과 일본이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하려고 노력했다(Kuno 1937: 309-311). 필리핀에 대한 히데요시의 정복 원정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필리핀의 스페인 식민 당국은 한 때 일본의 위협에 상당히 긴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인도의 고아의 포르투갈 식민 당국이 히데요시의 위협

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그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은 마당에 알 수 없다. 하지만 고아의 식민 당국은 마닐라의 스페인 식민 당국과는 달리 히데요시의 위협에 그다지 요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들이 일본 군대의 공격에 대한 소문을 듣은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해군이 일본에서 인도 서부 연안까지의 먼 거리와 험난한 항해를 무릅쓰고 해양 원정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히데요시의 위협이 가장 직접적으로 미친 조선과 중국의 반응도 달랐다. 조선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일본의 군사적 공격에 종종 반신반의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宣祖修正實錄: 권25, 선조 24년 3월 정유; 권25, 선조 24년 5월 을축), 여러 연구가 밝힌 바처럼, 그 침략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조원래 2005: 63-67). 조선 조정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는 전쟁의 초기 단계에서 중국 군대의 도움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

명 조정은 일본이 중국을 아시아에서의 팽창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는 소문을 다방면의 정보원을 통해 듣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특히 히데요시의 군대가 조선을 경유하여 중국을 침범하려고 하며 조선을 일본 군대의 향도로 삼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의 태도와 조선에서의 동향을 예의 주시했다. 명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실제로 발발하여 일본 군대가 조선의 수도를 정복하고 북진하자 한반도에 중국 군대를 파송했다. 명의 임진왜란 참전은 외면상으로는 조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 조선을 구원한다는 원군 파병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군이 중국으로까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중국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자구책이었다. 이 점은 무엇보다도, 『선조실록』의 1592년 음력 6월 26일 즉 양력 8월 3일의 기록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중국 황제가 속국인 조선에 구원병을 보내어 침략한 도적 무리를 섬멸하여 조선을 “아번리(我藩籬)” 즉 “우리의

올타리”가 되게 하라고 말한 것에서 엿볼 수 있으며(宣祖實錄: 권27, 선조 25년 6월 갑인), 또한 중국 군대가 평양에서 일본군에 대해 승리를 거둠으로써 일본군의 평양 이북으로의 진격을 차단한 이후 전쟁에서 보인 소극적인 자세와 일본과 추진한 강화 교섭에서 드러났다(한명기 1999: 31-49; 조원래 2005: 303-325).

조선과 명의 임진왜란에 대한 반응과 임진왜란의 전쟁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다. 이 글은 히데요시의 팽창 위협으로 인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위기 상황에 대한 태국의 반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태국 정부가 필리핀의 스페인 식민 정부, 고아의 포르투갈 식민 정부, 류큐 왕국, 타이완, 조선 등과 마찬가지로 1590년대 초에 히데요시로부터 위협적 서신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구노 요시사부로가 조사한 히데요시의 아시아 제국에 대한 위협적 서신들에는 태국 조정이 수신인으로 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태국의 『프라랏차 풍사와단 크룽 시 아유타야(Phra 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즉 아유타야 왕실연대기에도 16세기 말에 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떠한 외교적 접촉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태국의 임진왜란에 대한 반응은 현재로서는 중국과 한국 등 동북아시아의 한문 사료에 의존하여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명신종실록(明神宗實錄)』의 기록에 의하면, 1592년 10월 31일 중국 조정은 시암 즉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에서 온 사절단을 영접하여 향연을 베풀었다(明神宗實錄: 권252, 萬曆 20년 9월 계미). 태국 사절단은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 해 11월 16일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진상했으며, 중국 조정은 이에 대한 답례로 전례에 따라 그들에게 관(冠)과 띠를 상으로 하사했다(明神宗實錄: 권253, 萬曆 20년 10월 을해). 『명신종실록』의 1593년 2월 6일의 기록에 따르면, 중국의 양광(兩廣) 즉 광둥(廣東)성과 광시(廣西)성의 총독인 샤오

옌(蕭彥)은 중국 황제에게 태국 사신이 중국의 병부(兵部)에 태국이 군대로 중국 조정을 지키는 데 진력하겠다고 청원한 것을 아뢰었다. 태국 사신의 청원을 접한 병부의 보고에 따르면, 태국 사신은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국 황제에 대한 충성심과 이웃국가에 대한 동정심에서 그러한 청원을 올렸다(明神宗實錄: 권256, 萬曆 21년 정월 신유). 『명사』는 다음의 기록에서 태국 사신의 전쟁 참가 제안을 비록 간략하나마 더욱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다.

1592년에 일본이 조선을 쳐부수자 시암은 몰래 군대를 출동하여 일본을 바로 쳐 그 후방을 견제하겠다고 (중국 당국에) 청했다(明史: 권324, 列傳 제212, 外國5, 暹羅).

『선조실록』 1592년 음력 12월 8일 즉 1593년 1월 10일의 기록에 베이징에서 돌아온 사신 정곤수(鄭峴壽)가 국왕 선조(宣祖)에게 태국의 사신이 조선을 구하겠다는 청원을 중국 조정에 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태국 사신의 청원은 1592년 12월 말 이내에 이루어졌을 것이다(宣祖實錄: 권33, 선조 25년 12월 갑오).

동남아시아 역사가인 월터즈는 중국 당국이 태국 사신 일행의 중국 내방을 기회로 삼아 그들과 더불어 당시 한반도에 침략한 일본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Wolters 1968: 168). 일본을 견제 내지는 응징하기 위해 태국의 병력도 동원하겠다는 생각은 중국 당국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실록』의 1592년 음력 6월 26일 즉 양력 8월 3일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의 중국 침공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놓고 있었던 중국은 이미 1591년 가을과 겨울 사이에 조선에게 태국과 류큐 등의 나라와 연합하여 병력을 합쳐 일본을 토벌하라고 요구했다(宣祖實錄: 권27, 선조 25년 6월 갑인).⁴⁾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평안북도 의주(義州)에 피신해 있던 조선 국왕은 명의 선종(神宗, 재위 1572-1620)이 칙사 쉐판(薛藩)을 통해 보낸 칙서(勅書)를 1592년 음력 9월 1일 즉 양력 10월 5일에 읽었다. 이 칙서에서 중국 황제는 조선을 구하기 위해 이미 중국 군대 10만 병력을 동원하도록 지시를 내렸으며, 또한 동남부 해변의 여러 진(鎭)들에게도 칙서를 내렸고 이와 더불어 류큐와 시암 등의 나라에도 선유하여 이들이 10만의 군사를 모아 동쪽으로 가서 일본을 정벌하여 원흉을 제거하도록 조치를 취해두었다고 말한다(宣祖修正實錄: 권26, 선조 25년 9월 정사). 『선조실록』 및 『선조수정실록』의 이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명 조정은 1592년 10월 말 태국의 사절단이 베이징(北京)에 오기 전에 이미 일본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구상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태국과 류큐 등의 나라를 끌어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⁵⁾

태국 사절단은 1592년 가을에 베이징에서 중국 조정이 전부터 태국과 류큐 등의 나라를 일본에 대항하는 전쟁에 동원시키려고 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태국의 전쟁 참가에 대한 태국 사신의 제안을 중국 조정의 그같은 구상에 대한 즉흥적인 반응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나라의 사신이 자신의 국가가 다른 나라, 그것도 바닷길로 한 달 정도 걸려야 도달될 수 있는 먼 나라와의 전쟁을 위해 군대를 파병한다는 중대한 정치적·군사적 결정을 그렇게 쉽게 독단적으로 내릴 수는 없었

4) 조선의 조정은 1591년 음력 4월에 김응남(金應南)을 성절사(聖節使)로 임명하여 중국에 파견했다. 김응남이 조선에게 시암과 류큐 등의 나라와 연합하여 병력을 합쳐 일본을 토벌하라는 요구가 담긴 중국 황제의 칙서를 갖고 조선에 돌아온 날은 그해 음력 11월 2일 즉 양력 12월 17일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宣祖實錄』 권25, 선조 24년 11월 갑자조의 기록을 참조.

5) 월터즈(Walters 1968: 168)는 구노 요시사부로를 인용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선종 황제의 칙서가 조선 국왕에게 도착한 날을 1592년 양력 9월 2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한다. 한편, 구노 요시사부로(Kuno 1937: 157)는 명의 칙사 쉐판(薛藩)을 “Pi Fan(薛藩)”으로 읽는 실수를 한다.

을 것이다.

태국의 임진왜란 참전에 대한 태국 사신의 의사 표명은 당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태국 정부의 상황 판단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유타야 정부는 필리핀과 류큐에 대한 히데요시의 위협에 관한 소문을 이미 1586년경에 마닐라를 왕래하던 태국의 상선 혹은 남중국해에서 무역에 종사하던 화상(華商)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듣고 있었을 것이다(Wolters 1968: 167).⁶⁾ 아유타야 조정은 특히 당시 태국과 중국 사이를 빈번하게 왕래하던 자국의 화상들을 통해 일본이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태국과 류큐 등 나라의 군대를 일본에 대한 정벌을 위해 동원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태국 정부는 중국으로 조공 사절단을 파견한 1592년 여름 시점에는 적어도 당시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팽창 의도와 특히 일본의 중국 위협에 관한 소문을 입수해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

이상의 추론을 바탕으로, 아유타야 정부가 1592년에 중국으로 사신을 파견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일본의 군사적 위협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그것이 사실일 경우 중국 조정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태국 사신은 중국에서 일본의 동아시아에서의 위협을 확인한 후 중국의 병부에게 태국이 병력을 동원하여 일본을 공격함으로써 중국 조정을 돕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이 제안에 대해 병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이 제안은 태국 사신이 아유타야를 떠나기 전에 본국 정부가

6) 월터즈는 태국 정부가 류큐에 대한 일본의 위협을 15세기 초에 시작된 아유타야와 류큐간 무역 관계를 통해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아유타야와 류큐간 무역은 138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1560년대에 종식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조흥국(2001: 47-48) 참고.

7) 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조공 사절단은 여름 계절풍을 이용하여 가기 때문에 대개 7월이나 8월에 아유타야를 출발했으며, 광둥 즉 오늘날의 광저우(廣州) 항까지 30일 내지는 40일이 걸렸다. 이에 대해서는 Sarasin Viraphol(1977: 36) 참고.

내린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인다. 아유타야 정부의 이같은 지침은 중국 정부가 태국과 류큐 등 나라의 군대를 일본에 대한 공격을 위해 동원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그 결정의 바탕에는 당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태국 정부의 모종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다.

IV. 중국해 무역에 대한 태국의 이해관계

그렇다면, 태국 정부가 동아시아 정세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그토록 예민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16세기 말 태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보면, 아유타야 정부는 일본으로 해상 원정을 시도할 형편이 아니었다. 1569년 미얀마의 침공으로 수도 아유타야가 함락되고 국왕과 왕족과 많은 관리 및 백성이 미얀마로 끌려갔으며, 태국은 그 후 십수년간 미얀마의 한 속국으로 전락했다. 아유타야가 1580년대 중엽에 미얀마에 저항하자, 미얀마는 아유타야를 다시 굴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미얀마 군대의 공격은 1590년 나레수안(Naresuan)이 아유타야의 왕위에 오르자 더욱 격렬해졌다. 아유타야 왕국은 미얀마로부터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1592년에는 자신이 미얀마의 침공으로 약화된 틈을 타 침범하여 백성을 약탈해간 캄보디아를 응징하기 위한 원정도 준비하고 있었다(Wood 1933: 140-141). 아유타야에 대한 미얀마의 위협은 미얀마 군대가 1593년 초에 오늘날 수판부리(Suphanburi) 근처에 있는 농사라이(Nong Sarai)에서 태국 군대에 게 참패를 당한 후에야 멈추었다(Prasoet 1961: 23-27; Thien Subindu: 1959: 124-139).

영국의 태국 역사 연구가인 우드(Wood 1933: 146)는 태국이 1592

년 명 정부에게 중국을 돕기 위해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한 중국 사료의 기록을 언급하면서, 당시 나레수안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원정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미얀마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중국 정부에게 일본을 대항하는 전쟁에 참가하겠다고 제안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추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실제로 태국이 1592년에 처한 여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유타야 정부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전쟁에 참가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이 중국 당국에게 위에서 본 것처럼 그토록 비현실적인 군사적 제안을 한 것은 태국이 당시의 동아시아에서의 상황을 매우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특히 중국 무역 내지는 중국해 무역에 대한 태국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유타야 왕국은 왕조 초기부터 중국과 활발한 무역 관계를 갖고 있었다. 태국의 역사학자인 찰릿 까셋시리(Charnvit Kasetsiri)는 아유타야 왕조가 14세기 중엽에 아유타야를 수도로 삼아 창건될 수 있었던 중요한 경제적 배경으로 이 지역에서 그 이전부터 체류하면서 활동하던 중국 상인들의 중국 무역을 손꼽는다(Charnvit Kasetsiri 1976: 78-81). 태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은 크게 공적인 무역과 사적인 무역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태국이 중국으로 조공 사절을 파견할 때 행해지는 조공 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후자는 비공식적인 무역으로, 여기에는 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화상뿐만 아니라 태국의 왕실과 귀족관료들도 참가했다(Smith 1980: 11-12).

중국의 명은 1368년 왕조 건설 직후 해금(海禁) 정책을 실시하여 중국 연안에서 모든 사적인 무역을 금하고 중국인들의 모든 사적인 해외여행도 불법화했다. 해금 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중국의 동남부 연안과 남중국해를 무대로 활동하던 사무역 상인들과 특히 왜구가 새 왕조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Wang

Gungwu 1992: 14). 아유타야 정부는 이러한 해금 정책과 대외 교역을 조공 체제에 국한시키는 명의 무역 정책에 따라 조공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중국 정부는 외국에서 온 조공 사절에 대해 “(조공 사절이) 적게 갖고 왔더라도 (중국 조정은) 후하게 주어 보낸다.”는 후왕박래(厚往薄來)의 원칙을 갖고 있었다(李光濤 1958: 71). 아유타야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중국 조정에 조공을 진상할 때 그 답례로 특히 비단과 도자기 등 태국에서 당시 귀하게 여기던 중국 물품을 하사받을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조공 사신과 함께 중국에 간 태국의 조공 선박들은 바닥짐 화물(ballast cargo)로 싣고 간 소목(蘇木)과 후추 등 태국의 토산물을 광저우(廣州) 항구에서 팔고 본국으로의 회항 길에는 중국의 산물을 새로운 바닥짐 화물로 싣고 와 태국 시장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팔거나 일본, 인도, 말레이 반도의 여러 이슬람 왕국 등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로 재수출했다(Sarasin Viraphol 1977: 145).

아유타야 정부는 이처럼 많은 이익을 갖다 주는 조공 무역을 최대한 빈번하게 이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명사』와 『명실록』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아유타야 왕국은 1371년부터 1447년까지 중국으로 총 63번 즉 거의 매년 조공 사신을 보냈다(許雲樵 1946: 7-15; Wade 1993: A1~A2). 『명사』는 태국이 1371년부터 1374년까지만 10번의 사신을 파견하자 명 정부가 너무 자주 사신을 보내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듣지 않고 계속 보냈다고 기록한다(明史: 권324, 列傳 제212, 外國5, 暹羅). 아유타야 왕국은 청(淸) 왕조 시대에 들어서서도 1665년 중국 정부가 규정한 3년 1회의 조공 파견 원칙을 여러 구실로 지키지 않았다(淸史稿: 권528, 列傳 315, 屬國3, 暹羅). 예컨대 1665년에 베이징으로 조공 사절을 보냈던 아유타야 정부는 2년 뒤인 1667년에는 중국 황제에게 만수(萬壽)를 기원하라는 핑계로 또 조공 사절을 파견했다(許雲樵 1946: 23-24). 게다가 아유타야 정부는 조공사절 파

견 시 정공선(正貢船), 부공선(副貢船), 호공선(護貢船) 등 정규적인 선박 외에 보공선(補貢船), 접공선(接貢船), 탐공선(探貢船) 등 각종 구실을 단 선박을 추가로 보냈다. 그리고 광저우에 도착한 조공 선박들은 조공 사신 일행이 광저우에서 베이징까지 가서 중국 황제를 알현하고 다시 광저우로 돌아올 때까지 소요되었던 6-8개월의 기간 동안 태국으로 일단 돌아갔다가 다시 광저우로 올 수 있었다. 즉 태국은 3척의 선박으로 이루어진 조공 사절단을 중국으로 파송할 경우, 최대 6척분의 태국 화물을 중국 시장에서 팔고 6척분의 중국 산물을 사올 수 있었던 것이다(Sarasin Viraphol 1977: 32-38). 태국이 중국으로 빈번히 조공 선박을 파송한 양상을 어떤 중국 역사학자는 “앞의 배가 아직 돌아가지도 않은 채 다음 배가 계속 들어오니, 그것이 순환하고 끊이지 않아 쉼이 없었다.”라고 묘사한다(李光濤 1958: 71).

해외 무역은 아유타야 정부에게 있어서 왕조 초기부터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중요한 재원이었다. 특히 나레수안 왕은 미얀마의 침공으로 파괴된 나라를 재건하고 미얀마를 비롯한 주위 국가들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많은 재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나레수안이 해외 무역을 중시했다는 측면은 그가 1593년 말에 말레이 반도 북부의 서쪽 연안에 위치한 떠닝파이(Tanintharyi)와 따웨이(Dawei) 등을 정복한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Phonnarat 1971: 207-218). 오늘날 미얀마의 영토인 이 지역은 당시 태국에게 인도양 무역을 위한 중요한 거점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아유타야 왕국의 해외 무역 가운데 중국 무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태국의 나레수안 정부는 중국 무역 시장이 일본의 한반도 침공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위태롭게 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러한 입장은 베이징에 간 아유타야의 조공 사신이 중국 당국에게 태국의 임진왜란 참전을 제안한 것으로 표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V. 현실화되지 않은 태국의 참전

태국이 중국 정부에게 한 일본 원정 제안의 이야기는 조선 국왕의 귀에도 들어갔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선조실록』 1592년 음력 12월 8일의 기록에 의하면, 베이징에서 돌아온 사신 정곤수가 선조에게 중국 조정이 태국 사신의 전쟁 참가에 대한 청원을 허락했으며 그에 따라 태국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1593년 봄에 군대를 출동할 것이라는 소문을 전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조선의 국왕은 원 나라도 실패한 일본 정벌을 태국이 해낼 수 있으리라는 것에 희의를 품었다. 또 정곤수와 함께 베이징에 갔다 온 조선의 서장관(書狀官) 심우승(沈友勝)도 태국의 일본 원정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宣祖實錄: 권33, 선조 25년 12월 갑오).

태국의 임진왜란 참전 가능성에 대한 조선 조정의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온 명의 고위관리와 군 지휘관들은 중국 황제가 조선을 구하기 위해 태국의 병력도 동원시켰다는 것을, 앞에서 본 『선조수정실록』의 1592년 음력 9월 1일의 기록에서 나타난 것처럼 뿐만 아니라, 그 이후 1593년 중엽까지 계속 강조했다. 『선조실록』 1592년 음력 11월 15일 즉 양력 12월 18일의 기록에 중국의 병부우시랑(兵部右侍郎) 송잉창(宋應昌)이 조선 정부에게 보낸 격문(檄文)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 중 “중국 황제가 이미 푸젠(福建)과 광둥 지방의 장수들에게 시암과 류큐 등 여러 나라의 병력과 연합하여 전선을 띄우고 돛대를 세워 바로 일본 소굴을 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대목이 있다(宣祖實錄: 권32, 선조 25년 11월 신미). 또 중국의 병부주사(兵部主事) 위안황(袁黃)은 1593년 2월 6일에 압록강을 건너와 조선의 국왕에게 중국 황제가 이미 류큐와 시암 등의 나라에 명하여 일본을 공격하도록 했으니 이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宣祖實錄: 권34, 선조 26년 1월 신유). 중국 병부의 송잉창은 조선의 영의

정 최흥원(崔興源)을 통해 1593년 5월 초에 “중국 황제가 곧 시암과 류큐의 20만 수군에게 명령을 내려 일본의 소굴을 치도록 할 것이며, 그 수군은 나의 지휘를 기다려 나아가거나 멈추거나 할 것이다.”라고 조선의 조정에 알렸다(宣祖實錄: 권37, 선조 26년 4월 정해). 심지어 1593년 2월 23일에는 명의 장수들이 선조에게 “시암에서는 이미 10만 병력을 징발하여 일본을 정벌하러 갔다.”고 말했다(宣祖實錄: 권34, 선조 26년 1월 무인).

이상 살펴 본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은 마치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위해 태국의 해상 병력을 동원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것처럼 혹은 심지어 그 결정에 따라 태국의 군대가 일본 원정을 위해 이미 출동한 것으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태국의 병력을 동원하기로 결정한 바는 없었으며, 특히 태국의 임진왜란 참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 태국이 『조선왕조실록』에 서술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규모의 병력으로 일본 원정을 감행했다면, 그에 대한 기록이 아유타야 왕실 연대기 등을 포함한 태국의 다양한 사료들에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에 관한 기록을 태국의 사료들에서는 찾을 수 없다. 또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 등 한국 측 사료에는 태국 군대의 출병에 관한 소문이나 중국 측 사람들의 말만 있을 뿐, 실제로 일본 열도에 대한 공격을 위해 출병한 태국 전선을 목격했다든지 등에 대한 이야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태국이 임진왜란 시 참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근거는 중국 사료의 기록이다. 『명신종실록』의 1593년 2월 6일의 기록에 따르면, 태국의 전쟁 참가에 대한 태국 사신의 제안의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중국 정부 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 태국이 중국 황제에 대한 충성심에서 진력을 다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돕겠다고 병부에 청원을 드리자, 병부는 태국이 병력을 동원하여 일본을 공격하도록

태국 정부에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광 총독인 샤오옌은 “바닷길이 넓고 멀며 오랑캐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방안에 반대했다(明神宗實錄: 권256, 萬曆 21년 정월 신유). 『명사』는 이 부분을 보다 간략하게 정리하기를, 태국의 일본 공략에 대한 제안에 대해 병부상서(兵部尙書)인 스싱(石星)은 그 계획에 따르자고 황제에게 건의했지만, 샤오옌은 그것이 실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그 제안은 결국 포기되었다(明史: 권324, 列傳 제212, 外國5, 暹羅).⁸⁾

이현종과 하우봉 등의 한국 역사학자들도 일본에 대한 태국의 해상 원정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은 명 조정이 태국에게 전쟁 동원의 명령을 실제로 내렸다고 해석한다. 특히 이들은 중국 황제의 동원 명령에 따라 태국 군대가 바닷길로 일본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고, 또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처럼 10만 혹은 20만 규모로 동원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군대와 연합하여 육로로 한반도에 들어와 전쟁에 참가했다고 말한다(이현종 1974: 84-85; 이현종 1964: 283-287; 하우봉 2004: 96-97). 그들은 그 전거로 병조판서(兵曹判書) 이항복(李恒福)이 선조에게 드린 보고가 실려 있는 『선조실록』의 1593년 음력 4월 10일 즉 양력 5월 10일의 기록을 든다. 그 보고에 따르면, 당시 조선 땅에 들어와 있던 명의 장수 류팅(劉綎)은 이항복에게,

(자신의 군대가) 사용하는 각종 무기를 꺼내어 보여주고 또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섬라(暹羅), 도만(都蠻), 소서(小西),⁹⁾ 천축(天竺),¹⁰⁾

8) 19세기 중국의 역사학자이자 지리학자인 웨이위안(魏源 2004: 권8, 東南洋, 暹羅國)은 『명사』의 이 대목을 “시암이 출병하여 일본을 몰래 쳐서 그 후방을 견제하겠다고 자칭하자, 병부상서 스싱은 그 (제안에) 따르자고 했지만, 양광총독 샤오옌은 그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해석한다.

9) ‘소서(小西)’를 ‘소서양(小西洋)’으로 읽을 경우, 그것은 오늘날 인도 서남 연안에 위치한 고아(Goa)를 가리키거나 인도의 동부 및 서부의 연안 지역에 대한 총칭으로 이

육번(六番), 득릉국(得楞國),¹¹⁾ 묘자(苗子),¹²⁾ 서번(西番),¹³⁾ 삼새(三塞), 면국(緬國),¹⁴⁾ 파주(播州),¹⁵⁾ 당과(鎗鈿) 등에서 투항하여 (중국으로) 귀순한 자들을 좌우로 늘어서게 하여 차례로 각자 그 기술을 보이도록 했다(宣祖實錄: 권37, 선조 26년 4월 갑오).

이 인용문에 등장하는 중국 주변국과 변방 출신의 병사들을 이현종과 하우봉 등은 명 조정의 동원 명령에 따라 형성된 연합군이라고 해석한다(이현종 1974: 87; 하우봉 2004: 97). 그러나 이들은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중국에 향화(向化)한 자들로, 결코 명 정부의 조직적인 동원 계획에 의거하여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변방 지역에서 화북(華北) 지방으로 와 명의 군대와 더불어 연합군을 형성한 병력이 아니었다. 이 점은 이항복이 선조에게 올린 또 다른 보고를 담고 있는 『선조실록』의 1593년 음력 4월 12일 즉 양력 5월 12일의 기록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보고에 따르면, 류팅은 이항복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13세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다니며 천하를 누비고 다녔다. 그리고 외국에서 향화한 자들을 가정(家丁)으로 삼았다(宣祖實錄: 권37, 선조 26년 4월 병신).

류팅의 이 말에 따르면, 『선조실록』 1593년 5월 10일의 기록에 열

해된다. 이에 대해서는 辭海 - 地理分冊 · 歷史地理(1982: 344).

10) 인도 지역을 가리킴.

11) 딸라잉(Talaing)족 즉 오늘날 미얀마 남부와 태국 서부 일대에 살고 있는 몬(Mon)족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辭海 - 民族分冊(1982: 172).

12) 오늘날 중국의 구이저우(貴州)성, 윈난(雲南)성, 광시(廣西)성 등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먀오(苗族)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3) 오늘날 윈난성에 거주하는 푸미(普米)족을 가리킴. 푸미족은 언어적으로 중국-티베트 어계의 티베트-버마 어족에 속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辭海 - 民族分冊(1982: 52, 139).

14) 미얀마를 가리킴.

15) 귀주성의 한 지방임.

거된 태국, 인도, 미얀마 등에서 온 병사들은 일본의 조선 침략과 중국에 대한 위협 때문에 급조된 연합군 부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류팅이 어릴 적부터 중국 변방을 돌아다니며 모은 외국인들로 기껏해야 그가 전쟁터에 데리고 다니는 사병(私兵) 같은 자들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VI. 중국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외교와 태국의 실용주의 외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 정부는 태국의 일본에 대한 해상 원정 제안을 거부했다. 그리고 명의 고위관리와 장수들이 조선 정부에게 던진 태국 군대의 전쟁 동원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중국 황제와 고위관리 및 장수들의 태국 군대 동원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우선 그들의 그러한 말이 행해진 목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즉 그것은 한편으로는, 비록 그 내용의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해 조선 정부가 의심을 가졌지만, 당시 왜군의 침공으로 군급한 상황에 놓여 있던 조선 정부를 안돈시키려는 언질로 간주된다. 거기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황제의 명령에 따라 태국과 류큐의 대규모 병력도 동원할 수 있는 중국의 위엄을 조선에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며 천자(天子)인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자부심과 그러한 중국이 한 오랑캐 나라인 일본을 제압하기 위해 같은 오랑캐 나라인 태국에게서 군사력의 도움을 얻으려는 발상 사이의 모순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국과 류큐 등 나라의 군대 동원에 대한 명의 고위관리와 장수들의 언급이 행해진 배경에 대해 조금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명 조정의 국방부 차관에 해당하는 병부우시랑 송잉창이 조선 정부에게 1592년 12월에 보낸 격문에서 중국 동남부의 중국 군대들이 태국과 류큐의 수군과 연합하여 일본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한 것, 명의 군대 지휘관들이 1593년 2월에 태국의 10만 병력이 일본을 향해 출정했다고 조선 조정에 말한 것, 그리고 송잉창이 그 해 5월에 중국 황제가 일본에 대한 공격을 위해 태국과 류큐의 20만 수군의 동원령을 곧 내릴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은 모두 태국의 일본에 대한 해상 원정 계획을 찬성한 중국 병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선조실록』 1592년 8월 3일의 기록처럼 일본이 조선과 중국으로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중국 황제가 조선과 태국과 류큐가 힘을 합쳐 일본을 공격하라고 요구한 것, 그리고 『선조수정실록』 1592년 10월 5일의 기록처럼 중국 황제가 조선을 구하기 위해 태국과 류큐 등에 군대를 동원하여 일본을 정벌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칙서를 조선 조정에 보내는 것 등은 이이제이(以夷制夷) 즉 오랑캐를 사용하여 오랑캐를 제어한다는 중국의 전통적인 대외전략적 발상에 그 기원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¹⁶⁾

이 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태국의 전쟁 참가 제안의 동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따져보고자 한다. 아유타야 정부가 임진왜란 시 명 정부에게 수군으로 일본을 배후에서 공격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동아시아 특히 중국해 무역에 대한 태국의 이해관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인 및 배경에 대한 이러한 추측에도 불구하고, 태국이 당시 해외 원정을 시도할 여력이 없었을 상황에서

16) 이이제이(以夷制夷) 사례는 중국 역사상 적지 않게 있었다. 특히 명 왕조의 청쭈(成祖, 재위 1403-1425) 통치 시대인 1410년 경 중국 황제는 조선에서 파견된 사신에게 여진족이 조선을 침범하면 조선이 그들을 무력으로 응징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당시 중국에도 위협적이던 중국 변방의 오랑캐 세력을 조선의 병력을 이용하여 견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속셈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 박원호(2002: 189) 참고.

중국 정부에게 그토록 무리하게 보이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한 그 행위 자체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태국의 이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국제적인 전쟁 참가는 20세기에 실제로 두 번이나 일어났다. 태국의 와치라웃(Vajiravudh, 재위 1910-1925) 왕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처음에는 중립주의를 선포했다. 그러나 점차 전세가 독일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미국이 전쟁 참가를 선언하자, 태국 국왕은 승자 쪽에 가담하는 것이 자국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하여 1917년 7월에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유격대와 야전 의무부대로 구성된 약 1,300명의 병력을 유럽으로 파송했는데, 이 부대가 1918년 가을에 프랑스의 한 전선에 도착했을 때 전쟁은 이미 종식되고 있었다. 어쨌든 와치라웃 왕은 태국이 전승국 중 하나라고 선포했다. 태국 정부가 이처럼 늦게나마 연합국 측에 가담한 것은 이후 세계의 열강들이 태국을 자신들과 동등한 국가로 대해 주고 이로써 특히 19세기 말에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는 데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Terwiel 2005: 242-244).

태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동맹국 편에 서서 전쟁에 참가했다. 아시아에서 이른 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피분송크람(Phibunsongkhram) 정부는 처음에는 태국의 중립을 선언했지만, 1941년 말에 당시 승승장구 하던 일본과 군사 동맹을 맺고 그 이듬해 초에는 미국과 영국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태국 정부가 연합국 측에 맞서 싸울 만한 자체적인 전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을 택한 것은 일본이 태국을 압박한 점도 있었지만, 일본에 협력함으로써 태국도 아시아에서 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당시 태국 지도자들의 희망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조흥국 2008: 52-53).

태국의 정치학자 리킷 티라웨킨(Likhit Dhiravegin 1974: 44-48)은 그러한 외교 정책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노선도 변경하는 태국인들

의 전통적인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에 그 뿌리를 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16세기 말 임진왜란 시 태국의 전쟁 참가 제안도 태국인들의 한편으로는 실용주의적인,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주의적인 대외관계 전통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즉 아유타야 정부는 일본으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해 있던 중국에게 군사적 지원을 제안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태국의 충성을 입증해 보이는 한편 태국에 대한 중국의 신뢰를 강화시키고 이로써 궁극적으로는 중국 무역 시장에서의 태국의 입지와 이해관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노렸던 것이다.

주제어: 임진왜란, 아유타야 왕국, 대나무 외교, 중국해 무역, 이이제이(以夷制夷)

〈참고문헌〉

- 박원호. 2002.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서울: 일조각.
- 『宣祖修正實錄』, In 『朝鮮王朝實錄』, 1979.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宣祖實錄』, In 『朝鮮王朝實錄』, 1979.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이현중. 1964. “南洋諸國人の 來往貿易에 대하여.” 『사학연구』 18: 247-297.
- 이현중. 1974. “壬辰倭亂時 琉球・東南亞國人の 來援.” 『일본학보』 2: 68-95.
- 이현중. 1984. “琉球・南蠻關係.”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9: 조선 -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조원래. 2005. 『새로운 관점의 임진왜란사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 조흥국. 2001. “14-17세기 동남아-중국-일본 무역관계.” 『동남아시아

- 연구』 11(가을): 35-61.
- 조흥국. 2008. “식민주의 시기 및 일본 점령기 타이 역사의 평가.” 『동남아시아연구』 18(1): 37-71.
- 하우봉. 2004. “조선시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하우봉 외, 『해양사관으로 본 한국사의 재조명』. 서울: 재단법인 해상왕장 보고기념사업회.
- 한명기. 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
- 『明史 第十冊』. 2004. 二十四史全譯.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 『明神宗實錄』. 1964.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 『辭海 - 民族分冊』. 1982.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 『辭海 - 地理分冊·歷史地理』. 1982.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 魏源. 2004. 『海國圖志』. In 『魏源全集 第四冊』. 深圳: 岳麓書社.
- 李光濤. 1958. “明清兩代與暹羅.” 凌純聲 編, 『中泰文化論集』. 臺北.
- 『清史稿』. 1977. 北京: 中華書局.
- 許雲樵. 1946. “中暹通使攷.” 『南洋學報』 3(1): 3-35.
- Phonnarat. 1971.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somdet pbra phonnarat wat pbra chettuphon* (왓 프라 쳇뚜폰의 폰나랏 승려본 아유타야 왕실연대기). Bangkok: Khlang Witthaya.
- Prasoet, Luang. 1961.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luang prasoet* (루앙 뿌라셋본 아유타야 왕실연대기). In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lae phongsawadan nuea*. Vol. 1. Bangkok: Ongkankha khong khurusapha.
- Charnvit Kasetsiri. 1976. *The Rise of Ayudhya: A History of Siam in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Centuries*. Kuala Lumpur, London, New York, Melbourne: Oxford University Press.
- Kuno, Yoshi Saburo. 1937. *Japanese Expansion on the Asiatic Continent: A Study in the History of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Her International*

- Relations with China, Korea, and Russia*. Volume I.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uno, Yoshi Saburo. 1940. *Japanese Expansion on the Asiatic Continent: A Study in the History of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Her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China, Korea, and Russia*. Volume II.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ikhit Dhiravegin. 1974. "Thailand's Foreign Policy Determination." *Sangkbomsat*.
- Sarasin Viraphol. 1977. *Tribute and Profit: Sino-Siamese Trade, 1652-1853*.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Smith, George Vinal. 1980. "Princes, Nobles, and Traders: Ethnicity and Economic Activity in Seventeenth-Century Thailand." In Constance M. Wilson, Chrystal Stillings Smith, and George Vinal Smith (eds.), *Royalty and Commoners: Essays in Thai Administrativ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pp. 6-14. Leiden: E.J. Brill.
- Terwiel, Barend Jan. 2005. *Thailand's Political History: From the Fall of Ayutthaya in 1767 to Recent Times*. Bangkok: River Books.
- Thien Subindu. 1959. "Intercourse between Burma and Siam as Recorded in Hmannan Yazawin Dawgyi." *Relationship with Burma - Part I*. Selected Articles from the Siam Society Journal. Volume V. Bangkok: The Siam Society.
- Wade, Geoff. 1993. "The Ming Shi-lu as a Source for Thai History - 14th to 17th Century."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ai Studies. London: SOAS, 5-10 July.
- Wang Gungwu. 1992. *Community and Nation: China, Southeast Asia and Australia*. St Leonards: Allen & Unwin.
- Wolters, Oliver William. 1968. "Ayudhyā and the Rearward Part of the

임진왜란에 대한 태국의 실용 외교와 중국의 이이제이 외교 27

World.”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66-178.

Wood, William Alfred Rae. 1933. *A History of Siam*. Revised Edition.
Bangkok: The Siam Barnakich Press.

(2009. 7. 15 투고; 2009. 9. 9 심사; 2009. 9. 23 게재확정)

<Abstract>

The 1592 Japanese Invasion of Korea and Diplomacies of China and Thailand

Cho Hungguk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Thai kingdom of the Ayutthaya dynasty (1351-1767) disclosed it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war to the Chinese court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Joseon government heard of it through its Chinese counterpart. The Ming court stressed to the Joseon government the Chinese efforts to rescue Joseon by mobilizing Thai and Ryukyu troops. In Korean annals *Seonjo sillok*(Veritable Records of the Reign of Seonjo) and *Seonjo sujeong sillok*(Revised Veritable Records of the Reign of Seonjo) in the *Joseon wangjo sillok*(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there are many references to the dispatch of Thai troop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f one considers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ailand in 1592, when it found itself being threatened by the Burmese, while it was preparing for an expedition against Cambodia, which had plundered its eastern provinces when it had been weakened by the Burmese attacks, the Ayutthaya government was not in a position to offer a military aid to China. Thailand nevertheless made such an unrealistic proposal to the Chinese government, on the one

hand, because it was paying great attention to the situation in East Asia out of its interests in the trade with China or in the China Seas trade. The Thai proposal of the participation in the East Asian war in 1592 can be explained, on the other hand, in the context of the Thai diplomatic tradition which has been partly practical, partly opportunistic in character. Finally, the Chinese court's message to the Joseon court that it ordered Thailand and Ryukyu to mobilize troops to rescue Joseon from the invading Japanese army, can be understood to be based upon the traditional Chinese foreign diplomacy of controlling the barbarian through the barbarian, *yiyizhiyi*.

Keywords: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yutthaya Kingdom, bamboo diplomacy, China trade, *yiyizhiyi*